

# 성호사설 ‘만물문(萬物門)’의 지리 관련내용 고찰

손용택\*

## A Study on contents related to geography in “Myriad Things”(萬物門) of *Miscellaneous Explanations of Seongho*(星湖僊說)

Sohn, Yong Taek\*

**요약 :** 본 연구는 성호의 대표 저작인 [성호사설]의 만물문(萬物門)에서 지리관련 내용을 뽑고, 오늘날 지리학 분류체계와 개념을 기준으로 해석하면서 성호의 ‘지리적 관심과 사고(思考)’를 알아보려 한 것이다. 결과는 첫째, 지반의 응기, 회오리 바람, 토양성질, 옷 말판의 천문지리 등 자연지리 내용과 산삼, 담배, 고추, 전통과실(밤·대추·감), 高麗紙(한지), 뽕나무와 목면, 천연 염색, 마정(馬政), 지남침, 모내기 농구 양마(秧馬) 등 인문 지리 내용이 나타난다. 둘째, 회오리 바람, 지남침, 말[馬], 고추, 산삼, 전통과실(대추·밤), 사도(柵圖; 옷판) 등의 내용은 자세하고 깊다. 셋째, 철저한 고증과 인용을 바탕으로 기술하여 내용의 진위(眞僞)는 대체로 ‘진(眞)’이다. 넷째, 많은 주제와 내용들이 ‘서민들의 민생경제 및 그 개선’에 주안을 둔다. 농작물 관련내용과 말을 이용한 물자 수송 등에 주된 관심을 기울여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 다섯째, 모든 설명에 대한 고증과 인용은 중국(청) 문헌을 토대로 하는 것을 볼 때, 조선에 대해 당시 청(淸)은 선진세계이며 본받을 만한 문명 문물이었다. 여섯째, 말의 정책적 관리, 모내기 농구 양마, 뽕나무, 옷의 천연염색 등의 내용을 제외 하면 오늘날에도 효용성이 있는 유용한 내용들이다. 요약컨대 성호의 지리적 관심과 사고(思考)는 민생 농업경제에 초점이 모아짐을 알 수 있다.

**주요어 :** 성호사설, 만물문, 지리적 사고, 민생 농업경제

**Abstract :**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sub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s of Korea based on a Myriad Things” (萬物門), which is part of Seongho’s representative work entitled *Miscellaneous Explanations of Seongho* (星湖僊說), has been in this paper in order to understand Seongho’s “thinking on geography.” To do so, contents related to geography were selected and these were discussed and interpreted in terms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today’s geographical knowledge. Following i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First, information on astronomical geography and natural geography such as uplift, tornado, structure of soil, and the *yut* board as well as humangeographical topics such as wild *ginseng*, cigarettes, hot pepper, traditional fruits and nuts (chestnuts, jujubes, and persimmons), Goryeo paper (Korean paper), mulberry trees, cotton plants, natural dye, policy about horses, magnetic compass needles, and farming implements for rice transplantation are mentioned in “Myriad Things” in relation to geography.

Second, the depth of information described varies from topic to topic, but the topics on tornado and magnetic compass needles, horses, wild ginseng, traditional fruits and nuts, and *yut* board are described in depth and in detail. Third, authenticity of the contents on these topics are “true” insofar as

\* 한국학중앙연구원(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sohn@aks.ac.kr

bibliographical information and citations are provided for support. Fourth, these topics reflect the interests and circumstances that are related to the “economic improvement of common people’s livelihood” in those days, such as agriculture, crops, and transportation of goods. Fifth, the bibliography and citations explaining all instances reveal that China (Qing) is a great civilization of the advanced world and that the scholarship of Joseon relied on and accepted it. Sixth, except for horse raising and management, farming implements for rice transplantation, sericulture, and natural dying of cloth, most of the topics are useful even today. In short, there is a profound aspect to the content that makes it possible to estimate the “geographical thinking.” In general, the focus of the content of this book directly linked to the practical agricultural economy of the common people.

**Key Words** : *Micellaneous Explanations of Seongho* (星湖僊說), Myriad Things (萬物門), geographical thinking, agricultural economy of the common people

## 1. 서론

성호 학문의 결정판인 동시에 집대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설’(僊說)은 그가 40세 전후부터 쓰기 시작한 것이다. ‘보는 데 따라 생각나고 의심나는 것을 적어두고 펼쳐 보지도 않았던 것’으로 약 40년간 걸쳐서 학문을 논하고 가르치는 틈틈이 그때그때 적어두어 쌓이고 쌓인 것이다. 성호의 나이 팔순에 가까웠을 때 그의 족자(族子)가 쌓인 원고들을 정리하여 기록한 것이 성호사설의 탄생이다<sup>1)</sup>. 40여 년에 걸친 오랜 기간 동안 쌓이고 쌓인 원고들인지라 그 중에는 ‘중첩되거나 빠지고 그릇된 것이 많을 것’이라 했고, ‘초본(草本) 수권을 앞서 한번 점검해 보니, 그 잘못 옳기고 또 빠진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도 했다. ‘사설’이란 뜻은 일종의 잡저(雜著)를 의미하는 것이며, ‘사’(僊)라는 것은 즉 세쇄(細瑣)하다는 뜻으로 성호 자신이 겸사(謙辭)로 붙인 제목이다.

‘사설’은 천지문(天地門), 만물문(萬物門), 인사문(人事門), 경사문(經史門), 시문문(詩文門) 등 5개의 문(門; 서책 단위)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시무(時務)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경사(經史)와 예수(禮數)를 위시하여 역산(曆算), 지리(地理), 관제(官制), 경제(經濟), 군제(軍制), 서학(西學), 시문(時文)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성호의 해박한 학문적 지식과 비판이 담겨져 있어, 그 전문의 넓

음과 고증의 명확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리 관련 내용은 천지문과 만물문에 주로 등장한다. 필자가 일차로 연구했던 천지문에 이어<sup>2)</sup> 본 연구의 범위는 만물문에 집중하고자 한다. 천지문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오늘날 성호 이익에 대한 타 전공분야 학자들이 늘고 있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지리학 쪽에서는 그에 대한 깊은 연구가 일천한 편이다. [성호사설] 등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고전을 활발히 분석하여 지리적인 내용 또는 관련 사실들을 찾아내어 해석하고 정리하며 알리는 작업이 지리학계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일은 ‘한국학으로서의 지리학’ 저변확대의 일환이기도 하다. ‘한국학으로서의 지리학’은 그 대상과 범위가 방대하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세분화가 가능하다. 재외동포들의 디아스포라, 해외에 진출한 우리의 다국적 기업망, 국내 다양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과거와 현재 시점의 지역연구, 고지도와 지리지 및 선학들의 고전 속에 담긴 지리지식과 사고(思考)에 대한 고찰 등이 그것이다. 필자가 주목한 본 연구는 맨 후자에 속한다. 우리 선조와 선학들의 저술과 고지도 속에 담겨진 지리지식과 내용들을 발췌 해석하고 알리는 일은 ‘한국학으로서의 지리학’ 확대에 일조하는 작업이다. 우리의 고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리관련 내용이나 주제들이 현대지리학의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볼 때는 당연히 내용의 범위나 깊이에서 덜 구조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점이 있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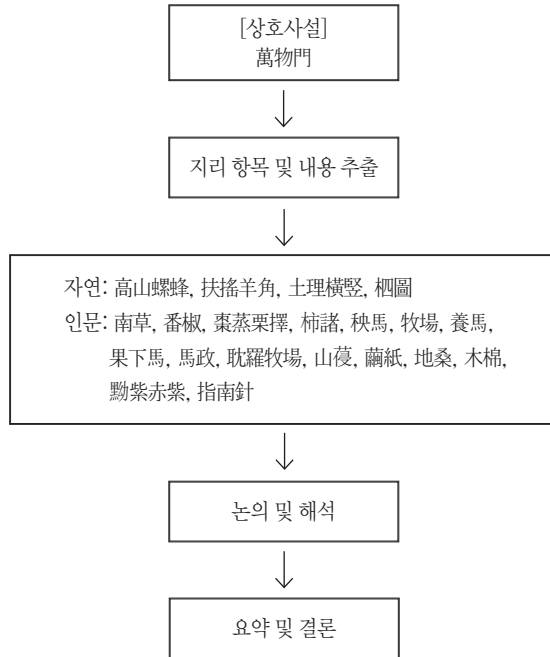


Figure 1. procedure of research. 연구설계

있으나 우리 선학들의 삶 속에는 시기마다 상황마다 당시에 응용 활용된 생활 지리 관련 지식과 정보들이 있고, 이들 지식과 정보는 당대의 생활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쳤던 결과로서 기록으로 남겨진 것이 분명하다. 그것이 오늘날 체계화된 지리지식의 바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부족한 점이 인정될지라도 당시 농업경제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생활과 삶에 자연과의 교호작용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며 경험에서 얻어지고 축적된 지리지식과 지혜로 다듬어져 기록으로 남게 된 것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학문으로서 현대 지리학의 저변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들이 활성화 될 규모나 역량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과거 우리 것을 돌아보고 발췌하고 해석하여 정리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알리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고전 속에 깃들여 있는 선학과 선조들의 지리 관련 사고(思考)와 철학, 지혜를 통해 과거 우리 삶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일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며, 이러한 관점이 본 연구의 필요성이자 목적이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호사설] '만물문'의 주제와 내용들 중, 성

호의 지리적 관심은 어떤 주제들로 표출되고 있는가. 둘째, 지리관련 주제들의 내용 깊이는 어떠한가. 셋째, '만물문'에 나타난 지리 관련 내용이 오늘날의 지리학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진위(眞僞)'는 어떠한가. 넷째, [성호사설] '만물문'에서 다룬 주제들을 통해 당시의 시대적 관심사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다섯째, '만물문'에 보이는 지리 관련 내용들은 오늘날에도 유용한 것들인가. 끝으로, 이상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그 결과를 종합하여 [성호사설] '만물문'에 나타난 '지리관(地理觀)'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여기서의 '지리관'이란 [성호사설] '만물문'을 통해 본 성호의 '지리적 관심의 깊이와 사고(思考)'로 간주한다. '지리적 사고(思考)'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지리학 또는 지리지식과 관련하여 어떤 주제를, 어느 정도의 내용 깊이까지 다루었으며, 왜 그 주제를 다루었는지에 대한 궁극적 성찰과 종합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고전 실학서를 대상으로 한 문헌연구이다. 둘째, 만물문의 내용을 살펴 지리 관련 항목 또는 내용들을 추출해 낸다. 셋째, 추출

한 항목과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 정확성을 알아본다. 이에 대한 잣대는 오늘날의 체계화된 지리식과과의 차이점을 들어내어 비교하는 방법이다. 넷째, 발췌한 주제항목 및 내용들에 대해 해석하고 논의한다. 본 과정은 연구의 핵심 절차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이상의 절차를 거쳐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본 연구의 절차와 연구내용의 진행과정에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과 해석이 깃들 수 있음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 될 수 있다.

## 2. 성호 이익의 사상

성호는 다른 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유교적인 정치철학으로서 왕도(王道)의 확립과 보민(保民)을 주장하였다. 다만 수구적인 유학자의 틀을 벗어나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치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농촌에 문혀 살았기에 왕정의 두 기둥이 토지문제와 민생문제 해결에 있음을 절실하게 생각했다. 그는 보민(保民), 편민(便民), 양민(養民), 애민(愛民), 위민(爲民)의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엄밀하게 말해 백성을 위한 정치를 지향하나<sup>3)</sup>, 양반정치를 지양하고 민의에 따른 정치를 해야 한다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도덕적 수양을 갖춘 지식인들이 정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유가(儒家)의 정치사상을 답습하였다. 이러한 정치사상은 항상 효(孝)에 근본을 두고 인(仁), 의(義), 예(禮), 지(智) 네 가지 덕을 체득해야 하는 것인 데, 이른바 유교의 인정(仁政), 덕치주의(德治主義)가 그것이다. 덕치를 하기 위해서는 군왕의 덕을 먼저 갖추어야 하며, 경연(經筵)은 군덕(君德)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행사로서 토론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sup>4)</sup>.

성호는 붕당으로 인한 당쟁을 미워하였다. 그는 당쟁이 일어나는 이유를 관직 수는 적는데 관직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과거시험을 너무 자주 실시하는 것, 인사행정이 공정하지 못한 것 등이 당쟁 발생의 불씨가 되었다고 생각하였다<sup>5)</sup>. 그러므로 과거시험을 공정히 시행하고, 관리의 고과(考

課)를 엄정히 하는 것이 당쟁을 잠재우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과거시험에서 경서를 중시하지 않고 문장 시험에 치중한 것도 폐해를 일으키는 한 원인으로 보았다. 서열(庶孽)을 차별하고, 서복사람을 차별하며, 무신을 업신여기는 것도 잘못으로 지적했다. 성호는 또한 의정부(議政府)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언관(言官)의 언론 평가제를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을 인사에 반영하기 위한 관청으로 총장사(總章司)를 제안했다. 아울러 군현 수를 대폭 축소하자고 제안하였다<sup>6)</sup>.

농촌에 살았던 성호는 상품화폐경제의 발달로 사치풍조가 만연되고 양반지주들의 치부 욕심을 자극하여 소농민들이 토지로부터 소외되어 유랑생활을 하거나 고용노동자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균전제(均田制)를 주장하였다. 균전제는 가난한 농민이 땅을 팔 수 없도록 하면 땅을 보전할 수 있고 부유한 자는 여러 아들에게 땅을 나누어 상속하게 되므로 제도 시행 후 시간이 지나면 땅을 고르게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sup>7)</sup>. 이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규모 이상의 땅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여 고르게 소유하도록 하자는 연암 박지원(1737-1805)의 한민명전의(限民名田議)와 비슷한 생각이다<sup>8)</sup>. 또한 상업의 발달로 화폐가 유통되어 농민에게 해로우니 화폐를 없애야 한다는 폐전론(廢錢論)을 주장하였다. 화폐의 유통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윤추구에 매달리게 하여 풍속이 나빠지고 사치풍조가 만연되어 소농민이 몰락하게 된다는 것이다<sup>9)</sup>. 재화는 결국 농민의 노동력에서 나오는데 상업이 발달하면 농민이 농업을 버리고 상업으로 몰리기 때문에 근본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민은 농업에 몰두하도록 하고 절약과 검소한 생활을 미덕으로 여기도록 하며 열심히 생산노동에 종사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노동을 저해하는 여섯 가지 좁과 같은 제도를 들었다. 노비제도, 과거제도, 문벌제도, 기교(技巧), 승니(僧尼), 빈둥거림(遊惰)이 그것이다. 이 여섯 가지 좁은 해로움이 도적보다 크다고 하였다. 노비의 자식은 부모를 이어 노비가 되어야 한다는 제도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악법이며, 과거제도는 일도 하지 않고 효제(孝悌)도 행하지 않으면서 요행히 과거에 합격하면 잘난 체하고 사치와 방탕에 휩쓸려 백성들만 수탈하는 폐가 있다고

보았다. 문벌 자체들은 재주도 없으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하고 굶을 지경에 이르러도 천한 일을 하지 않으려 하니 해독이 크다고 보았다. 광대와 무당의 기교(技巧)는 사람들을 미혹시켜 해가 되고, 국역(國役)을 피하여 곡식만 허비하는 중들도 개혁대상이 되어야 하며 어려서부터 놀러 다니기를 좋아하고 바둑과 장기 두는 데만 열중하는 풍조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다<sup>10</sup>.

성호는 또한 선진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다. 고금의 흥망 성쇠는 시세(時勢)에 달린 것으로 도덕적 선악이나 인과응보, 권선징악 등은 역사와 무관하다고 보았다. 천하의 일은 시세(時勢)에 좌우되는 것이며, 요행(僥倖)과 시비(是非)는 부차적인 것이다. 천년이나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진정한 시비를 어떻게 가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sup>11</sup>.

성호는 또한 화이론(華夷論)이나 춘추대의(春秋大義)도 믿지 않았다. 이것은 한족(漢族) 왕조가 그 외의 왕조를 이적시(夷狄視)하는 배외사상(排外思想)일 뿐이며 현실성이 없는 공허한 명분론으로 간주했다. 나아가 우리나라 역사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이론으로 보았다. 이런 관점은 노론 사대주의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12</sup>. 또한 정통론도 실제로 대세를 주도한 나라를 정통으로 해야지 도덕적 선악을 기준으로 정통성을 정하는 것은 잘못이라 보았다. 유비(劉備)의 촉(蜀)보다는 조조(曹操)의 위(魏)를 정통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예로 들었다. 성호는 직접 역사책을 쓴 적은 없으나 이러한 역사관은 그의 제자인 순암 안경복의 [東史綱目] 편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성호는 유학자이되, 구태의연한 유학자들과는 달리 항상 세상에 관심을 가졌고 그의 의견이 쓰이지 않더라도 계속 제안하는 것은 지식인으로 마땅히 할 일이라고 보았다. 즉 그는 경의(經義)와 세무(世務)를 함께 중시하는 실학자였다.

성호는 사장(詞章)공부 보다는 경서(經書)공부에 치중해야 한다고 하였다. 경서를 바르게 이해해야 수기치인(修己治人)이 바르게 되며 글 장난에 불과한 문장공부에 치중하는 것은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문장공부에 치중하여 명리(名利)를 구하는 자는 거짓학

자로 여겼다<sup>13</sup>. 성호는 조선 유학자들이 사칠론(四七論)에만 집착하는 것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세무(世務)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세무에 밝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藿憂錄]을 저술했다. 국정의 폐해와 민생의 어려움을 개혁하려는 뜻에서 성호는 요(堯), 순(舜), 공자(孔子)의 고대유학으로의 복귀를 주장하였고, 이를 그의 학문적 바탕으로 삼았다. 나아가 고대(古代)유학을 새로이 집대성한 주자와 퇴계를 존승하였다. 그러나 경전의 한 글자, 한 구절이라도 바꾸어서는 안된다는 주자의 생각에는 반대하였다. 경전의 주석은 전적으로 믿기만 해서는 아니 되고 궁리하고 성찰하여 경전의 본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성호는 경전에 대한 독창적인 견해를 많이 내놓았다. 이러한 점에서 성호는 독창적인 실학자였다고 할 수 있다<sup>14</sup>. 성호는 [孟子]로부터 시작하여 [大學], [小學], [論語], [中庸], [近思錄], [心經], [周易], [書經], [詩經], [家禮] 등을 20여 년에 걸쳐 차례로 읽고 생각나는 점을 그때마다 적어 놓았다. 이것이 유명한 성호의 '疾書'이다. '疾書'라는 용어는 張橫渠의 '畫像贊妙契疾書'에서 따온 것이다. 성호가 [孟子疾書]를 지을 때 만아들이 태어나 그 이름을 孟休라 지었다고 한다<sup>15</sup>.

성호는 특히 퇴계를 존경하였다. 퇴계를 중국의 공자에 비유하고, "퇴계는 동방의 유학을 대성한 祖", "東土의 學은 마땅히 퇴계로서 태조(太祖)를 삼아야 한다", "퇴계 이후에 퇴계 없다"는 등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물론 이황과 남명 조식에 대한 존경심도 이에 못하지 않았다.

한편, 성호의 가계에서 지리지 많이 쓴 것도 성호의 학맥과 깊은 관계가 있다. 寒岡이 [大麓志]를 비롯한 여러 읍지를 쓴 것이나, 眉叟 허목이 [三陟志]를 쓴 것을 모본으로 하여 李元鎭은 [耽羅志]를, 李重煥은 [擇里志]를 썼다. [東國地圖]를 그린 鄭尙驥도 李萬休의 사위였다. 성호의 조카 李秉休는 말하기를, 퇴계의 학통을 이어받은 사람은 성호뿐이라 하고, 퇴계를 공자에 비유한다면 성호는 주자에 비유할 만하다고 하였다<sup>16</sup>.

성호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 실학자들의 할 일이라 하였다. 그러한 職務者의 표본

으로 栗谷 李珣와 礪溪 柳馨遠을 들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근세 조신 이래로 職務者로 손꼽을 사람은 오직 李栗谷과 柳礪溪 二公 뿐이다. 栗谷의 주장은 태반이 시행될 수 있는 것이었고, 礪溪는 근본 문제를 연구, 파악하여 일제히 혁신하였으니, 王政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그 뜻이 원래 컸다.”<sup>17)</sup> 하였다. 그러나 율곡과 반계 두 사람의 주장 가운데에는 실행될 수 없는 것도 있다고 하였다.

성호는 자신의 학문이 현실에 실익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를 부끄럽게 여겼다. 그는 말년에 실의와 체념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가 믿어지지 않았던 영남지방의 풍속마저도 퇴폐해진데 대하여 실망하는 마음을 금치 못하였다<sup>18)</sup>.

성호는 특히 서양 과학문명에 관심이 많았다. 항해를 통해서 그려진 서양지도, 천체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視遠鏡, 일식이나 월식을 정확하게 맞추는 西洋曆書, 한의학에 못지않은 서양의학, 실용성이 높은 龍尾車, 서양 총, 안경, 自鳴鐘 등이 그것이다<sup>19)</sup>. 서양 지식을 통해서 천재지변이란 자연현상일 뿐 인간의 不德 때문이 아니며, 군왕이 그 책임을 져야한다는 기존의 관념을 잘못된 생각이라 하였다<sup>20)</sup>. 또한 서양화의 원근법, 眞景描寫를 통해 그려지는 서양화에 비교해서 진경을 그리지 않고 넘치는 상상력에 의존한 동양화풍을 비판하였다<sup>21)</sup>. 성호는 본질적으로 유학자였다. 따라서 천주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예수의 부활설, 천당 지옥설, 동정녀 잉태설, 靈異說은 실증할 수 없는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치부하였다.

성호는 유학사상을 바탕으로 서양 과학의 사상(事象)만을 받아들여야 했으므로 東道西器論의 단초를 연 실학자였다고 할 수 있다.

성호는 농촌에서 소농민과 함께 살면서 이들과 애환을 같이하고 이들의 생활을 개선하는데 앞장서는 한편 국가의 정책이나 양반 통치자들의 의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폐정을 개혁하고 양반 통치자들의 독선적이고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바꾸어 개선하려는데 역점을 두었다. 실세(失勢)한 몰락 양반의 견해가 실제 정치에 이용되기는 어려웠다. 단지 그를 따르는 문인들에 의하여 조선후기 실학사상이 꽃

피게 되고 이로 인해 간접적으로 국정 개혁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뿐이다.

### 3. 지각 변화와 천문지리

산의 정상부에 나타나는 소라와 조개 껍데기를 보고 성호는 본인의 생각뿐만 아니라 주자의 의견을 비교하여 그 원인을 설명하였다<sup>22)</sup>. ‘사설’에 인용된 주자(朱子)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천지개벽에 대해 논하기를 “내가 일찍이 높은 산에 소라와 조개 껍질이 돌틈에 끼어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돌은 옛날의 것이고, 소라와 조개는 곧 물속에 사는 것이니, 낮은 것이 변해서 높게 되고, 유한 것이 변해서 강하게 되는 이치를 이런 일에서 성찰할 수 있겠다.” 하였다.

이에 대해 성호 이익의 의견은, 천지가 개벽할 즈음에는 사람이건 동물이건 다 사라져 없어지기 마련인데, 주자가 설명한 대로라면, 저 소라와 조개만이 능히 산 정상에 오뚝하게 남아있을 수 있겠으며, 현재의 한 알 모래와 한 개의 돌이 있다 할지라도 어찌 이것이 모두 천지와 함께 살아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하였다. 성호는 생각하기를, 돌이란 수토(水土)의 기(氣)가 엉켜서 이루어진 물건인 까닭에 수토가 뒤엎길 즈음에 소라와 조개가 그 사이에 섞이게 됨은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다. 다만, 이 소라와 조개가 높은 산에 있다는 것은 반드시 소라와 비슷한 물건이 산위에 생겨나는 것이고 바다의 소라와는 다른 것일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상의 내용에서 두 사람 공히 천지개벽의 시점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산 정상에 나타나는 소라와 조개 껍데기의 존재이유에 대해서 주자 쪽의 의견이 오늘날의 지반용기를 증명하는 증거로서 과학적 설명에 가까운 면이 있다. 성호 보다 약 6세기 앞선 주자 측의 설명이 오늘날의 그것에 가까운 것은 설명하는 관점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 같다.

한편 양의 빨과 같은 모양으로 거세게 빙빙 돌아 오르는 회오리바람을 기이하게 살폈다. 성호 선생이 하루는 어느 길 위에서 매우 급하게 부는 회오리바람을

만나자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회오리바람이 사면으로 몰려와 빙빙 돌다가 바로 치솟아 반공까지 이르는 데, 바로 서서 빙빙 도는 모양이 마치 양의 뿔과 같았다.

경상도 춘양(春陽) 지방에 살았던 이시선(李時善)은, “회오리바람은 도는 방향이, 낮이 되면 완곡으로부터 빙빙 돌아서 오른쪽으로 향하고, 저녁이 되면 앞으로부터 내려와 뒤로 돌며, 밤이 되면 오른쪽으로부터 굴러서 왼쪽으로 돌아오고, 아침이 되면 뒤로부터 치솟아서 앞으로 나아간다.” 하였으나, 성호선생은 이러한 내용까지는 아직 경험하지 못해 깨닫지는 못했다고 하였다. 회오리바람은 반드시 사면으로 이르는 까닭에 빙빙 돌게 되는데, 이는 대개 지구의 호흡하는 기운이라고 성호선생은 생각했다<sup>23)</sup>.

오늘날 대규모의 회오리 바람은 넓고 평탄한 대륙이나 바다 위에서 많이 발생한다<sup>24)</sup>. 미국의 넓고 평탄한 각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토네이도(tornado) 역시 같은 원리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하나같이 대기가 불안정하여 지상과 대기권 사이에 기압차가 발생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성호 선생은 토양의 성질에 따라 물빠짐이 크게 다른 것을 주목해 보았다<sup>25)</sup>. 눈을 애써 만들어 물을 댈 음에도 쉽게 물이 빠져버리는 것을 살폈다. 성호 선생 친구 중 어떤 자가 산골에 들어가 산을 뚫고 냇물을 끌어다가 들판에 물을 대서 눈을 만들었는데, 물이 들어가는 대로 새어 버려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또 어떤 이는 산 어귀에 독을 가로막고 저수지를 만들었으나 물이 끝내 고이지 않으므로 절구 공이를 이용해 몇 만번 굳게 다졌지만 역시 아무 효과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토리(土理)에는 가로와 세로가 있는데 세로로 된 것은 물이 새어 버리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진 후산(陳後山)은<sup>26)</sup>, “영중(潁中)의 토리는 가로[橫]와 세로[立]가 있는데, 세로로 된 토리에는 벼를 심을 수 없다.” 하였고, 하 맹춘(何孟春; 명나라 학자)은, 산골 백성들이 언덕을 따라서 움막을 치고 사는 것을 보고 그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가로로 된 토리에는 오래 살아갈 수 있지만 세로로 된 토리는 무너지기가 쉽습니다.’라는 대답에 대해, 성호 선생 왈, 이것은 수리(水利)를 맡아 다스리는 자로서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상의 내용은 오늘날 구조지형학 또는 토양지리학에서 설명할 때, 토양모재와 기반암의 절리(節理) 발달 방향 및 모재성분 구성과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대규모의 평평한 화강암이나 편마암이 기반암일 때와 수직 절리로 발달한 현무암 등이 기반암 일 때는 토양모재의 저수상태 또는 물빠짐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그밖에 어떤 기반암을 모재(母材)로 해서 발달한 토양인가와 토양 공극(空隙)과도 관련되는 내용이다. 토양의 성질을 결정짓는 데에는 기반암과 토양모재, 토양공극 등이 영향을 미쳐 함수(含水)와 배수가 달라질 것이다. 구성 물질이 물에 녹아 지하 동굴까지 만드는 석회암지대이거나 물이 잘 스며들어 없어져 버리는 현무암 수직 절리가 발달한 토양에서는 물이 빠져버려 눈을 만들 수 없는 이치와 같다. 결국, 토리(土理)란 기반암에 발달한 수직절리 또는 가로로 발달한 수평절리 여하에 따라 배수상태가 결정되고 부차적으로는 토양 공극과도 관련이 깊은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성호는 지질학자나 토양 학자가 아니라서 과학적 용어와 원리를 동원한 설명은 불가능했지만 토양성질의 기본 맥락을 알고 나름대로 과학적 상상력을 통해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다.

웃놀이 말판에 천문과 지리의 섭리와 철학적 내용이 들어 있음을 성호선생은 자세히 설명하였다<sup>27)</sup>. 성호사설 만물문 ‘사도(柶圖) 향에 이르기를, 사도설(柶圖說)이란<sup>28)</sup> 것은 누가 만들어 낸 것인지 알 수 없다. 그 내용에 보면, “밖이 둥근 것은 하늘을 상징함이고, 안이 모난 것은 땅을 상징함이며, 중앙에 있는 것은 북두칠성의 첫째 별을 상징함이다. 사방에 벌여 놓은 것은 28수(宿)를 상징한 것이다<sup>29)</sup>. 말[馬]을 쓸 때에는 북(北)에서 일으켜 동(東)을 지나 중앙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북(北)으로 나가게 되니, 이는 동지(冬至) 날 태양(太陽) 궤도를 상징한 것이고, 또 말을 북(北)에서 일으켜 동(東)을 지나 중앙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서(西)를 경유하여 북(北)으로 돌러가게 되니, 이는 춘분(春分) 날 태양 궤도를 상징한 것이며, 또 말을 북(北)에서 일으켜 동(東), 남(南), 서(西)를 모두 지나 북쪽까지 크게 한 바퀴 빙 돌게 됨은 하지(夏至) 날 태양궤도를 상징한 것이고, 또 북쪽에서 말을 일으켜 동

쪽과 남쪽을 경유하여 북쪽으로 나오게 됨은 추분(秋分)날 태양궤도를 상징한 것이다. 말[馬]은 반드시 네 필로 함은 사계(四季)를 상징한 것이고, 옷은 둥근 나무 두 토막을 쪼개어 대통처럼 네 개로 만들어, 엮어 지게도 하고 자빠지게도 함은 음양(陰陽)을 상징한 것이다. 이 네 개를 땅에 던지는데, 흑 세 개가 엮어지고 한 개가 자빠지기도 하며, 흑 두 개가 엮어지고 두 개가 자빠지기도 하며, 흑 한 개가 엮어지고 세 개가 자빠지기도 하며, 흑 네 개가 모두 자빠지기도 하고, 흑 네 개가 모두 엮어지기도 하는데, 네 개란 수는 땅에 해당하는 수요, 다섯 개란 수는 하늘에 해당하는 수를 상징한 것이다. 두 사람이 서로 마주 앉아 내기를 하면서 던지는데, 고농승(高農勝)이란 산협 농사가 잘 된다는 것이고, 오농승(汚農勝)이란 해안 농사가 잘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세시(歲時)에 옷놀이를 하는 것은 그 해의 풍흉을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성호는 생각하기를 옷이란 것은 본디 비수(比首)이름이다. [의례](儀禮)에는. “각사(角柶)와 목사(木柶)라는 것이 있는데, 길흉에 따라 쓰는 법이 다르다.”하였다. 사목(四木)을 주사위라 하는 까닭에 사(柶)라고 일컫게 되었으나 추측컨대 고려가 남긴 풍속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른바 고농, 오농이란 것은 무엇을 가리킨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옷판 말 쓰는 데 구별이 있음이 마치 바둑에 백과 흑이 있는 것과 같아서, 고농과 오농이라 이름한 것일지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성호 선생이 인용하여 적고 있는 것처럼 고려시대부터 풍습으로 내려와 명절에 세시 풍속으로 즐기는 옷놀이 말판에 천지, 음양, 태양궤도(춘분, 하지, 추분, 동지), 28개 별자리, 북두칠성의 머릿 별자리와 북두칠성의 회전방향, 사시사철의 상징, 산협과 해안 등 천문지리가 모두 들어있다. 천문지리의 심오한 철학을 녹인 축소판이 사도(柶圖)인 셈이다. 원리를 알고 나면 옷놀이와 옷판을 통해 이 모든 자연의 섭리철학을 깨칠 수 있으니 흥미진진한 일이다. 매우 훌륭한 작품이며, 그 해의 풍흉을 가늠하는 세시의 놀이로서 손색이 없다. 다만, 성호 선생은 이러한 ‘사도(柶圖)설’에 대해 좋다 나쁘다를 분명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옷놀이에 대해 언급하기를 이는 ‘삿된 게임’으로

교육상 좋지 않아 권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견에는 다소 의아한 바가 있다.

## 4. 농작물과 과실, 산삼(山蓂)

### 1) 특용작물 담배와 고추

우리나라에 담배가 많이 유행된 시기는 광해군(光海君) 말년부터 시작되었다. 세상에서 전하기로는 남쪽바다 가운데 있는 담파국(澹巴國)이란 나라에서 들어온 까닭에 속칭 담배(澹巴)라 한다는 것이다<sup>30)</sup>. 어떤 이가 태호선생(太湖先生)에게 담배란 것이 사람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물었더니, 첫째, 가래침이 목구멍에 붙어 뱉어도 나오지 않을 때 유익하고, 둘째로는 구역질이 나면서 침이 뒤끓을 때 유익하며, 셋째로 먹은 것이 소화가 안되고 불편할 때 유익하며, 넷째로 가슴이 조이고 신물이 올라올 때 담배를 피우면 안정되는 것이 유익하며, 다섯째는 한겨울에 추위를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해로운가? 이롭기 보다 해롭기가 훨씬 심한 것으로, 안으로 정신을 해치고 밖으로 들고 보는 것까지 해쳐서 머리가 희게되고 얼굴이 늙게 되며, 이가 일찍 빠지게 되고 살도 따라서 여위게 되니, 사람을 빨리 늙도록 만드는 것이다. 성호 선생 말씀하기를 이 담배라는 것은 유익한 것 보다 해가 더 심하다고 보는 것은 냄새가 고약하게 나빠서 제계(齊戒)하여 신명(神明)을 사귄 수 없는 것이 첫째이고, 재물을 없애는 것이 둘째이며, 세상에 할일이 많은 것이 진실로 걱정인데, 상하노소를 막론하고 해가지고 날이 저물도록 담배 구하기에 급급하여 한시도 쉬지 않으니 이것이 셋째이다. 만약 이런 마음과 힘을 학문을 닦는 일에 모은다면 반드시 대학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글에 힘 쓴다면 대문장도 될 수 있을 것이며, 살림을 돌본다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성호선생은 당시 담배의 최초 생산지와 관련하여 그 이름이 붙여졌고, 사람에게 해롭기가 그지없음을 알고 무익한 담배에 대해 성호사



설의 한 항목 주제로 삼아 이같이 언급하였다. 이것은 당시에도 이미 건강에 대한 담배의 폐해가 얼마나 심했는가를 짐작케 한다.

성호 선생은 이르기를 [성경통지(盛京通志)]에 보면, “진초(秦椒; 고추)는 대추보다 길면서 위가 뽀족하며 익기 전에는 푸르고 익으면 붉다. 또 위로 치켜들면서 열매를 맺는 종류도 있는데, 이름하여 천초(天椒)라 한다.”하였다. 성호선생이 시험 삼아 직접 맛을 본 바에 의하면 천초는 씨가 많고 매운 맛이 적었다고 적고 있다<sup>31)</sup>. 왜인(倭人)들은 고추를 번초(番椒)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왜초(倭椒)라 하는데, 맛이 몹시 맵기 때문에 채소만 먹는 야인(野人)의 비위에 가장 알맞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왜인의 지방에서 들어왔다는 것만을 아는 까닭에 이름을 왜초라 하나, 성호선생은 왜인이 지은 번초 시(番椒詩)를 살펴보았다.

一種開從秦地來，醜容不待酷霜催  
何人縛就隄毛筆，未許尖頭著麝煤

한 종류 번초는 진 나라에서 들어왔다는 말을 들었는데, 붉은 그 모습 찬서리 오기 전에 벌써 익었구나.  
어떤 사람은 이를 따서 붓으로 이용하려 하면서도,  
뽀족한 머리의 사향처럼 향기로운 먹은 인정치 않네.

이로 본다면 번초(番椒)란 본래 진 나라에서 왜(倭)로 들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당(唐)나라 [시화보(詩畫譜)]에는 온갖 초목을 모두 적어 놓았는데, 남번초(南番椒)라 적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혹 번우(番禹) 지방에서 생산되었던 것으로도 추정하고 있다. 번우(番禹)는 옛 진나라 때의 현(縣) 이름으로 오늘날 중국 화남지방 광둥성 광저우 일대를 일컫는다.

우리 일상생활에 양념작물로 없어서는 안될 붉은 태양초 고추이던 풋고추이던 비타민이 매우 풍부하다. 특히 붉은 태양초 고춧가루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김치를 담구는 데 없어서는 안될 양념작물이다. 성호사설의 관련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즐겨 먹는 고추의 기원은 중국 화남지방 광둥성 광저우 일대의 남번초(南番椒)로 추측할 수 있고, 이것이 일본을 거쳐 한

반도로 건너왔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성호 선생이 직접 맛을 보았다는 천초(天椒)는 뽀족한 끝이 하늘을 향한 남방의 작은 고추이다. 중국 화남의 광둥성 일대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일대에서는 천초를 즐겨 많이 먹는다. 우리 속담에 ‘작은 고추가 맵다’고 했듯 속담의 작은 고추와는 종자가 다를지언정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그 매운 맛은 통렬하기 그지없다. 성호선생이 직접 맛을 보았다고 하는 천초는 씨가 많고 별반 맵지 않았다고 적고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일 수도 있을 것이다.

## 2) 대추와 밤, 감과 귤

예전부터 과실 중에 대추와 밤을 소중히 여긴 것은, 건강에 좋아 한방약재로도 들어가는 과실이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중요성을 인정받은 과실인 만큼 조상들께 올리는 제사상에 반드시 들어갔다. 그리고 보관 관리 측면까지 세심히 신경을 썼다. 그래서 “대추는 찌고 밤은 가린다(棗蒸栗擇).”고 하였다<sup>32)</sup>. 일상 생활에서 대추와 밤을 취할 때 껍질과 씨를 발라 정리하면 더욱 활용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 즉 대추와 밤은 반드시 찌서 익히는데 대추는 씨를 빼고 밤은 껍질을 벗겨야 우수하다는 것이며, 그 중 벌레 먹었거나 혹은 섞어 상한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껍질과 씨를 버린 후에 정한 것만 가려서 써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상례(喪禮)에는, “밤을 가려서 쓰지 않는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전(奠)도 또한 조상께 음식 드리는 도인데<sup>33)</sup>, 가려 써야 할 것이 있다면 응당 그 래야 할 것이다. 다만 초상의 전(奠)에는 꼭 하룻밤을 묵히고 거두지 않으므로, 밤을 찌서 정하게 만들면 상하기 쉽기 때문에 그냥 쓰게 된 듯하고, 또는 밤을 가려서 쓴다고 했으니 찌다는 뜻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성호사설 내용을 통해 본다면 밤과 대추는 제사상에 반드시 오르는 중요한 과실이다. 제사상에 꼭 올라야 하는 과실이라면 그만큼 일상생활에서도 건강에 좋은 과실로서 이미 효험을 인정받은 때문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대추와 밤은 한방약재로도 효과가 있는 전통 과실이며 예부터 일상생활에서

사랑받는 과실이다.

새로 따온 중국 화남지방의 리지[荔枝]를 성호는 맛보지 못했으나, 그 맛이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나는 연홍수시(軟紅水柿)만 못할 것이라 하였다. 왜냐하면 연홍수시는 햇볕에 말려서 얼마 동안 저장해 두면 껍질에 하얀 가루가 생긴다. 하얀 가루가 핀 꽃감의 감미는 마른 리지보다 훨씬 나으니, 그 생것 역시 이와 비교해 알 수 있다는 것이다<sup>34</sup>. [예기]에 도저(桃諸), 매저(梅諸)라는 말이 있는데, 모두 말린 건과라 했고, 그 주에, “저(諸)자는 저(諸)자와 통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건시(乾柿)를 시저(柿諸)라 부를 수 있으며, 대추와 밤도 조저(棗諸), 울저(栗諸)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시(詩)를 짓는 자료로 많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중국에서는 ‘시병(柿餅)’이라고도 한다.

성호사설 만물문에서 우리나라의 꽃감과 비교한 리지[荔枝]는 석류와 더불어 양귀비가 즐겨 먹었다는 중국 광둥[廣東] 및 광시[廣西]지방 특산 과일이다. 대체로 탁구 공 또는 골프 공보다 좀 작은 크기에 뱀 껍질 같은 외피를 쉽게 벗겨 먹을 수 있는데, 속에 있는 콩보다 조금 큰 씨를 발라내고 입에 넣으면 달고 향기 넘치는 과육과 과즙이 입안을 가득 채운다. 중국 광둥과 광시 지방에서는 5월부터 6월까지 가장 인기 좋은 특산 과일로 생산되며 전국으로 퍼져나간다. 말려서 건과로도 먹지만 생것보다 맛이 훨씬 못 미친다. 이러한 건과로 된 려지와 우리 꽃감 맛을 비교할 때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꽃감 맛에 려지의 건과가 못따르고, 생것의 맛을 비교한다면 맛의 성질이 달라 각기 개성을 지닌 맛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려지와 우리 꽃감을 비교한 것은 성호 선생의 재미있는 견해로 볼 수 있다.

한편, 성호 선생의 관찰에 의하면 감(柿)은 온화한 해안지대에서 많이 생산되고, 현지에서 맛있고 굵은 훌륭한 감은 소비되고 내륙의 산지 마을로는 작고 볼품 없는 감이 공급되지만 이곳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최고의 달고 맛있는 감으로 인식한다고 하였다<sup>35</sup>. 이것은 감의 인식에 대한 지역차를 반영한 것이다. 본래 감의 품종은 우열이 있는 것이며 감이 서리를 맞아 무르익으면 진액이 많고 달게 되는 데 그렇게 제대로

익은 감의 맛은 여타 다른 과실에 비하면 맛의 품질이 가장 우수하다고 하였다.

대개 꽃과 과실을 심는 데에도 반드시 특이한 품종을 구해야 하고 따라서 잘 번식시켜야만 갈수록 더욱 아름답게 된다고 성찰하였다.

### 3) 산삼(山蓼)

성호는 말하기를, 신라의 오엽삼(五葉蓼)은, 비록 토산물이기는 하지만 지극히 귀하어서 가난한 선비들이 구해 병고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다보니 이를 대신하여 세속에서 사삼(沙蓼)이라고 하는 것을 구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sup>36</sup>. 그러나 [본초](本草)에 보면, “사삼(沙蓼)은 씹이 있고 줄기가 곧다.”고 하였으므로, 세속에서 쓰는 것은 덩굴이 뻗어 나가는 것을 사삼이라 하여 사용하니 결코 진품이 아닌 것이라 하였다.

사람들은 혹 이를 가리켜 만삼(蔓蓼)이라고 하지만, 만삼이란 것은 [본초](本草)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냉이[薺芎]를 만삼으로 오인하고 부인들 산후증을 치료하는 데 쓰고 있다. 그러나 이 냉이란 것은 해독시키는 풀(약초)이다. 온갖 약을 그 본성에 따라 쓰지 않으면 그르칠 것이 명확하다. 그 만삼이라고 말하는 것은 혹 산삼인 듯하다. 동 월(董越)의 조선부(朝鮮賦)에, “송피(松皮)의 떡과 산삼의 과자라.”하고, 자기가 주하기를, ‘산삼은 약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이는 손가락만 하며 생긴 모양은 무우와 같다.’ 하였다.

요동 사람은 이것을 산나복(山蘿菔; 산무우)이라 하는데, 멍쌀에 섞어서 절구에 찧은 다음, 구워서 병이(餅餌)를 만든다. 그리고 이 산삼은 살결이 아주 부드럽기 때문에 쌀가루에 섞어 기름에 튀겨서 동그란 떡을 만들기도 하니, 이는 세속에서 일컫는 산증(山蒸)이란 떡으로, 사람들이 이 제도를 본받아서 만드는 이가 있다. 성호선생은 일찍이 이 산삼을 시험해 보았는데 꺾으면 흰 진액이 나오고 오래 되면 그 진액이 불그스름한 빛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이 만삼은 보혈하는 힘이 있으므로 부인병을 치료하는 데에 알맞다고 한다.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인삼’ 이전에 이미 ‘신라의 오염삼’이 세속에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언급된 산삼(만삼), 사삼, 약초로서의 냉이 외에 인삼[家蔘]과 홍삼 등 삼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성호는 일찍이 삼의 효험을 알고 관심을 기울였는데, 삼은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꼭 귀했던 것은 분명하다. 삼의 진위(眞僞)에 대한 시비가 관심을 끌었을 만큼, 삼 진품은 귀한 약재로 인정받았음이 분명하고 일찍이 약재로서의 인기품목이었음을 알 수 있다.

## 5. 종이와 의료(衣料), 염색

성호 선생은 고려 종이와 일본의 종이에 대해 비교하는 마음이 있었고, 특히 고려의 종이 견지(繭紙)에 관심이 컸던 것 같다<sup>37)</sup>. 견지(繭紙)의 우수함에 대해 옛날부터 전해 오기를, “왕희지는 잠견지(蠶繭紙)와 서수필(鼠鬚筆)<sup>38)</sup>로 난정첩(蘭亭帖)<sup>39)</sup> 서문을 썼다”고 한다. 송나라 조 희곡(趙希鵠)이 지은 [동천청록(洞天淸錄)]<sup>40)</sup>을 생각해 보니 “고려지(高麗紙)란 것은 면견(綿繭)으로 만들었는데, 빛은 비단처럼 희고 질기기는 명주와 같아서 먹을 잘 받으니 사랑할 만하며, 이는 중국에 없는 것으로 역시 기품(奇品)이다.” 하였다. 면견(綿繭)은 즉 잠견(蠶繭)이다. 성호 선생은 난정첩을 썼다는 것도 혹은 이 고려 종이를 가리키는 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성호선생 당대에 견지란 것은 일본에서 들여왔는데, 성호 선생이 구입해서 글씨를 시험해 보니 참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능히 만들 수 없는 것으로 알았다. 성호는 추측하건대 조희곡이 봤다는 것도 일본에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다.

우리는 한지(韓紙)의 우수성을 많이 얘기한다. 이러한 우수한 한지의 기술과 문화전통의 누적이 어느 때를 기점으로 해서 시작되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이상에서 말하는 고려 종이는 꼭 우수했었음이 분명하다. 면견(綿繭)이 곧 잠견(蠶繭)인지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조 희곡(趙希鵠)의 [동천청록(洞天淸錄)]에 고려지(高麗紙)는 곧 면견(綿繭)이며, 비단처럼 희고 명주처럼 질기고 먹을 잘 받아 중국에 없는 기품(奇

品)으로 감탄했다는 기록을 애써 부인하거나 증명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종이가 얼마나 우수 했던가를 이해하고 빛나는 전통을 이어서 더욱 발전시키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뽕나무 즉 지상(地桑)을 가꾸는 방법은 요동(遼東), 심양(瀋陽) 등지를 참고해 볼만하다. 연경(燕京; 북경)에 사신으로 갔던 사람들에게 들으면, 영평(永平) 들판에 두루 심어진 것이 모두 뽕나무라 하였다. 대체로 살펴보니 밭두렁에 심어 놓고 해마다 베어서 이용한다. 잎은 누에를 먹이고 껌질은 종이를 만들며, 가지는 휘어서 광주리와 농 등속을 만드는 등 버릴 것이 없이 활용가치가 높다. 그러나 뽕나무를 가꾸는데 있어서 성목으로 키우기는 지극히 어렵다. 그것은 두 종류의 벌레 때문인데, 한 종류는 가지에서 시작하여 속을 파 먹고 뿌리까지 들어가며, 다른 한 종류는 벌레가 오래 묵은 뽕나무껍질에서 생겨 나무 둘레를 빙 둘러 파먹어 나무가 말라 죽게 된다. 그리고 땅이 너무 토박하면 무성하지 않고, 밭 두둑에 심으면 곡식에 해를 입힌다. 따라서 뽕나무를 효율적으로 가꾸는 방법은 해마다 베어서 크게 자라지 못하게 한다고 하니, 의심할 것 없이 시험해 보는 것이 좋다고 했다<sup>41)</sup>. 뽕나무의 열매 ‘오디’가 익으면 씨를 받는데, 씨를 심으면 바로 나지만, 여름철 가뭄에 말라죽을 수 있으며 겨울 추위에는 얼어 죽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씨를 받아 간직했다가 해동된 후에 심으면 겨울철이 되더라도 이미 뿌리가 깊이 내렸으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뽕나무를 키워 누에를 먹이고 고치에서 실을 뽑아 명주비단 등 옷감을 만들어 내는 일은 농촌 아낙네들 부업 가운데 으뜸을 차지할 일이었다. 그만큼 손이 많이고 부지런해야 했기에 여인들의 고생이 막심했다. 오늘날에는 각종 화학섬유의 등장으로 의료(衣料)적 가치는 많이 퇴색하였다. 대신에 뽕잎과 이를 먹이어서 키운 누에 등은 또 다른 의료(醫療)적 가치를 인정받아 약재로 활용되기도 한다<sup>42)</sup>. 뽕나무를 크게 키우지 않고 해마다 베어서 뿌리로만 번식시키는 이유를 성호의 설명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으며,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다양하게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당시 뽕나무는 서민들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므로 성호의 관심이 뽕

나무 전반에 대해 세세한 곳까지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성호 선생은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육지면(陸地綿)은 고려시대의 사람 문익점(文益漸)이 중국에서 씨를 들여와 퍼뜨린 것이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면화를 목면(木棉)이라고들 하는데, 실은 목면이 아니고 바로 초면(草綿)으로 불리어 맞는 이름이라고 하였다<sup>43)</sup>. [광지(廣志)]에 기초해 보면, “오동나무 잎에 끼어 있는 흰털을 모아 가는 실을 뽑아서 베를 짜낸다.”했고, 배씨(背氏)의 [광주기](廣州記)에는, “남쪽 오랑개는 누에를 기르지 않고 목면(木棉)을 따서 솜을 만든다.”고 했으며, [남사](南史)에는<sup>44)</sup>, “고창국(高昌國)이란<sup>45)</sup> 나라에 실을처럼 생긴 풀 열매가 난다. 그 이름을 백첩자(白疊子)라고 하는데, 베를 만들 수 있다.”하였다. 성호는 이 면화란 것이 목면, 초면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본래 한 종류인 것으로 여겨진다고 생각했다. 남쪽 지방은 기후가 따뜻한 관계로 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고 면화가 높이 자라 목면으로 되지만, 중국에 들어가면 기후가 고르지 않아 해마다 심기 때문에 초면으로 되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중국 번우(番禺)지방에는 본래 푸르고, 붉고, 하얀 세 가지 종류의 목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특히 그 흰 것만 전한다고 한다. 구준(丘濬; 명나라 학자)은 이르기를, “면화는 원(元)나라 때 비로소 중국에 들어왔다.”고 하였지만 근거를 밝히지 않아 확실하지 않다. [속박물지(續博物志)]<sup>46)</sup>에는, “면화 종자는 번우 사신 황 시(黃始)가 갖고 온 것이라 하여, 지금 광저우에서는 그의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 준다.”고 하는 걸 보면, 광저우에서 황 시의 공로를 대우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문익점을 잊지 않고 기리는 것은 같은 맥락이다.

이상의 내용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목화, 또는 면화로 불리는 목면은 중국 광둥성[廣東省] 광저우 일대 번우(番禺) 지역에서 기원한 것이며 세 가지 색이 있었으나 현재는 흰색 면화만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전역에 퍼진 것은 흰색 면화일 것이고, 우리나라 고려시대 문익점이 들여왔다고 전해지는 목화씨는 육지면의 씨앗이다. 그 이름이 왜 목화 또는 목면이라 하여 나무 목(木)이 들어갔는지에 대한 의문은 성호 선생의 설명에 납득이 간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기후지역에서는 다년생이 아니고 봄에 씨를 뿌

려 가을에 거두어들이는 1년생 의료(衣料) 작물이기 때문이다. 성호 선생의 설명 및 고증에 따른다면 본래 육지면은 붉은 것, 푸른 것, 흰 것 등 세 가지 종류가 있었으며 그것의 원래 생산지는 중국 화남(광저우 일대) 지방이었고, 당시 중국 본토(중원)로 들어간 것은 흰색 목면이었고, 그것이 우리나라 문익점에 의해 한반도에도 들어오게 된 것이다. 목면이라고 불리게 된 경위, 면화의 전파 경로, 끝까지 살아남게 된 종자(종류) 등에 대한 설명은 지리적 흥미를 가질만하다.

성호선생 당시 중국 저자에는 염색 중에 모란색(牧丹色)이 있었다. 이는 곧 유자색과 비슷한 것인데, 옛날에는 이런 색상이 없었다. 송(宋)의 인종(仁宗) 때에 남쪽에서 온 어떤 염공(染工)이 운향 잎을 불태운 재로 자색 바탕에다 물들여서 유자색으로 만들었다<sup>47)</sup>. 이것을 나라에 바쳤는데, 사람마다 좋아하지 않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는 너무 사치스런 복색이라 하여 결국 엄금시켰었다. 도읍을 남경으로 옮긴 이후에는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유자색 옷을 입고, 도리어 적자색은 임금도 좋아한다는 이유로 보통 사람들은 감히 입을 수 없게 되었다. 적자색이란 것은 자초(紫草)로 물들이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를 자주색이라 하나, 끝내 유자색은 무슨 물건을 써서 물들이는지 성호선생은 알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모란색이라고 일컬었으므로 모란꽃과 잎을 불태운 재로 물들인 것 같다고 성호 선생은 생각했다. 성호사설에 천연 염색에 대한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 천연의 염료를 사용하여 아름다운 염색을 창출해 내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으며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일일뿐만 아니라 나라에까지 보고해서 관심을 가질 정도로 중대사였던 것 같다. 색을 얻는 자체의 일이 어려웠던 일인만큼 복색으로 귀천을 구별하기도 했음을 여실히 알 수 있다.

## 6. 말의 사육과 농구, 나침판

### 1) 정책적 말(馬)의 사육 관리

성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인(聖人)은 백성을 보호하면서 재정을 늘리고 횡포를 금하는 일에 급선무를 삼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림살이에 필요한 무명과 삼베, 소금과 철 등 생활 필수품들의 수요 공급에 따른 물자이동을 원활히 하도록 하여야 하며, 따라서 교통수단으로 말이 중요시 되므로 이의 사육과 관리를 절대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48)</sup>. 당시 시대상황으로 보면 운반 교통수단으로 말보다 더 좋은 것이 없었을 것이다. 사람을 태우거나 물자를 싣고 거친 들판길을 달려갈 수 있는 육지 운송수단으로 가장 긴요한 것이며, 또 외침을 막는 기마용 가축으로도 더할나위 없으므로, 말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존재였다. 따라서 우수한 말의 종자를 얻어 계속 수를 불러 나가려는 정책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일이었다. 주(周)나라 비자(非子)가<sup>49)</sup> 견(涇)과 위(渭) 사이의 지역에서 말을 길렀는데, 말이 많이 번식되자 효왕(孝王)이<sup>50)</sup> 부용읍(附庸邑)인 진(秦)나라에 봉해 주고 군사를 출정시킬 때는 반드시 말을 관장한다고 믿는 신에게 제사 지내도록 했던 것도 얼마나 말을 소중히 생각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내용이다.

옛날 마원(馬援)이<sup>51)</sup> 교지(交趾)에서 성공할 때도 역시 말의 힘을 힘입었던 까닭에, 구리로 말을 만들어 말의 상(相) 보는 술법을 삼으려고 조정에 바치며 이르기, “한 무제(漢武帝) 때 말의 상을 잘 보는 동문경(東門京)이란 자가 구리말[銅馬]을 만들어 나라에 바치자, 무제는 명하여 노반문(魯班門) 밖에 세우고 그 문 이름을 금마(金馬)라 하였다. “신(臣) 원(援)은 양 자아(楊子阿)에게 말의 상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남의 얘기를 듣는 것이 직접 보는 것만 못하고, 그림자로 보는 것이 형상을 자세히 살피는 것만 못하며, 살아있는 말로 형용하려면 골격을 갖춰서 말하기 어렵고, 또 후세에 전할 수 없기에, 신은 동문경과 양자아의 말을 적어 모범을 삼은 것입니다.”하였

다. 이것이 비록 후세에 전해지지는 않았으나 이후에도 말의 상을 잘 보는 자가 많으니, 좋은 말을 가려서 방목한다면 뛰어난 종자가 반드시 생산될 것으로 보았다.

성호 선생 당시 우리나라의 마정(馬政)은 상황이 중국하고는 크게 달랐다. 우선 말의 사육과 관리를 하급관리인 아전들에게 맡겨 마음대로 흠쳐 가도 모를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이를테면, 관리하는 말들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말은 뽑아가 버리고, 목장에 남아 있는 것은 머리만 내두르며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종자들만 남겼다. 그나마 수효도 날마다 줄어드는 것이 마정(馬政)의 현실이었다. 성호 선생은 이 큰 과실에 대해 개탄 해 하지 않았다.

우리의 제주 목장은 원나라의 세조(元世祖) 때부터 시작되었다. 제주에서는 키가 큰 마땅한 종자가 없애도 종자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을 개탄했다. 조정을 통해 청나라에 교시(交市)를 청하면 반드시 거절하지만은 않을 터인데, 이러한 계획을 세우거나 실행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 화를 내고 있는 것이다. 제주(濟州)에서 생산되는 말은, 본래 대완(大宛)<sup>52)</sup>에서 들여온 것인데, 키가 크고 몸집도 크며 번식도 잘 된다. 그러나 관리하는 아전들이 그 중에서 조금 좋은 말은 모두 몰아다가 복역(服役) 시키고 남아 있는 것은 모두가 걸음도 잘 못걸고 종자도 잘아서 별볼일 없는 것들이다. 북쪽 저지에서는 암컷이나 불을 치지 않은 수컷은 일체 매매를 금한다. 이는 대개 뛰어난 종자를 외방으로 내보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이는 가끔 사오기도 한다.

만약 암컷과 수컷을 몇 필만 사들여서 섬 가운데 별도로 기르며 과하마(果下馬)와 섞이지 않도록 하면, 십 여년 후에는 반드시 내빈(駮牝)<sup>53)</sup>, 경모(駟牡)<sup>54)</sup>처럼 잘 번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런 계획을 세우는 이가 없다. 제주에서 생산되는 말도 원(元) 나라 때부터 들여온 것이므로, 청나라에 부탁한다면 반드시 좋은 종자 번식과 유지할 방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성호는 마정(馬政)이 엄격해야 함을 깨닫고, 이의 성패를 청나라의 그것과 절실하게 대비시켜 장단점을 논하고 있다. 중국의 말에 대한 정책과 말을 고르

는 일에 대한 전문 식견, 말을 사육해서 수를 늘리는 일 등이 우리의 그것과 차이가 크다는 지적과 함께 우리의 마정에 대한 실책을 질타하고 있다.

마정(馬政)은 북쪽 지방의 풍속을 본받아야만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변방에서는 말을 기를 때 콩을 삶아 먹이거나 죽을 끓여 먹이지 않고, 뛰어다니며 풀을 뜯도록 놓아먹인다. 그리고 산과 들에 갈대가 많아도 지붕을 만들어 덮어주거나 자리를 깔아주지 않고 한테서 자도록 버려둔다<sup>55)</sup>. 그래서 비록 살찌고 운택한 모습은 없을지라도, 성질이 억세고 사나우며 배고픔과 추위를 잘 견디게 되므로 배부르게 먹이지 않아도 멀리 달릴 수 있다.

수컷은 모두 불을 치는 까닭에 길들여 부리기가 쉽고, 굴레를 벗겨 놓아도 도망가거나 서로 물고 차지 않는다. 이러하므로 한 사람이 수십 필씩 몰고 다녀도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타고 달릴 때 재갈을 물리거나 굴레를 씌우지 않아도 사람의 지휘에 따라 달린다. 그리고 호랑이가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않고 돌진한다.

우리나라의 말 사육관리를 보면 변방과 달리 따스하고 배부르게 먹이는 것이 꼭 사람과 같이 하는 까닭에 반나절만 빨리 몰면 입에서 거품을 토하고 전신에 구슬같은 땀을 흘린다. 또한 성질이 나빠 싸우기를 좋아하고, 질서를 어지럽혀 떼를 지어 울부짖으면 제어할 방책이 없다. 북쪽 사람들은 일이 없을 때면 말을 완전히 쉬게 하는 까닭에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발굽이 이지러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발굽에 박는 대갈은 누가 처음 만들어 냈는지 알 수 없으나 대갈을 사용하지 않은 말이 없다. 이로 인해 발굽이 단단하지 못하여 대갈이 닳아 이지러지면 걸음을 걷지 못하니, 이런 말을 만약 전투용으로 이용한다면 어느 겨울에 대갈을 박아 전장에 내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뿐만 아니라 장사치가 부리는 말은 하루도 쉴새가 없어서 쉽게 늙고 오래 살지 못하며, 귀한 사람의 말은 달리기에 익숙하지 못해서 급한 일이 있어도 사용할 수 없다.

말의 사육은 들판에 풀어 먹여 야생의 힘을 더해야 한다는 점, 쉴 때는 폭 쉬도록 해서 굴레를 씌우지 않더라도 사람이 다루기 편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 말굽

에 대갈을 박지 말고 야생마와 같이 자연의 단단한 말굽이 되도록 키워야 한다는 점, 좋은 종자를 구해 번식시키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되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실패 원인들과 중국(청)의 성공요인을 비교해 바로잡도록 강조하고 있다.

한편, 성호 선생께서 생각해 보니, 서역의 오차국(烏蹉國)이란 나라에 소보마(小步馬)라는 말이 생산된다고 하였는데 종자는 작지만 걸음은 잘 걷는 말이었다. 당나라의 학자 안사고(顏師古)는 '소(小)는 세(細)의 뜻이므로 세보(細步)는 살살 가면서도 재빨리 잘 간다는 말인데, 지금 이른바 '백 걸음에 발굽을 천 번 옮긴다.'라는 뜻이라고 하였다. 그 세마(細馬)란 것은 바로 소보마를 지칭하는 듯하다고 하였다. 또, "예국(濊國)에 과하마(果下馬)라는 말이 생산되는데, 한(漢)나라 때에 늘 공물로 바쳤다. 키가 석 자쯤 되므로 과실나무 밑을 마음대로 다닌다고 했다<sup>56)</sup>. 이른바 예국이란 것은 곧 우리나라(조선)를 지칭한다. 북경 사신이 오면 반드시 걸음 잘 걷는 좋은 말만 가려서 보내곤 했는데 이것을 납마(納馬)라 하였다. 북경에서는 이 과하마를 부녀자의 승마용으로 이용했던 까닭에 귀하게 여겼다.

성호 선생은 서역 오차국(烏蹉國)의 소보마(小步馬)와 세마(細馬), 우리나라의 과하마(果下馬)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과하마는 전투용 또는 수송용 말과는 완전히 다른 용도이고 종자이므로 번식시키는 과정에서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2) 모내기용 양마(秧馬)

소동파가 지은 양마인(秧馬引)에, "옛날 내가 무창(武昌)에서 놀 때 농부들이 모두 양마(秧馬)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 느릅나무와 대추나무로 배[腹]를 만든 것은 미끄럽게 하려는 것이고, 산추나무와 오동나무로 등[背]을 만든 것은 가볍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몸체는 작은 배[舟]처럼 하여 머리와 꼬리를 위로 향하도록 만들고, 등은 얇은 기왓장처럼 하여 양쪽 평형다리를 경편하게 만들어서, 진흙 속을 뛰어다닌다. 깊으로 묶은 모[秧]를 말머리에 얹어매고 하루

에 천 후(千畦; 1후는 50畝)를 다니니 허리를 구부리고 동작하는 자에게 비교하면 수고롭고 편한 것이 크게 다르다”하였다<sup>57)</sup>. 성호 선생은 생각하기를, 양마는 비록 편리할 듯하나, 재빠르기는 걸어다니는 것보다 못할 것으로 보았다. 성호 선생 왈, “상상컨대 중국은 농사짓는 기술이 발달한 것은 분명한 일이라 치고, 무릎이 빠질 정도로 진흙이 깊어서 모음을 운반하기가 어려운 까닭에 이와같은 기구를 만들어 이용한 것인가? 논을 이처럼 깊이 같았으니, 곡식 수확은 응당 갑절이 될 것이다.”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갈아 놓은 흙은 겨우 발등이 덮일 정도라고 한탄하였다.

농사란 왕정(王政)의 근본인 것인데, 기술과 관리가 이처럼 소홀하니 매우 탄식할 일이라 하였다. 사서(史書)에, “우(禹)는 네 가지 것을 닦는데 진흙길에 다닐 때는 썰매를 탔다.<sup>58)</sup>”했는데, 이에 대해 맹강(孟康)은, ‘썰매는 키[箕]처럼 생긴 것이 진흙 위로 뛰어 다닌다’하였는데, 그것은 아마도 양마와 같은 것을 두고 일컫는 것으로 여겨진다. 성호가 말한 양마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농기구이다. 성호 선생 지적대로 무릎까지 빠질만한 깊은 논을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성호 선생은 소동파의 글을 인용해서 양마에 대한 소개를 통해, 중국의 그것과 비교해 반성할 점을 짚어보고 농업기술 혁신에 노력할 것을 피력하고 있다.

### 3) 나침반

술가(術家)에서 방위를 정할 때에는 항상 남쪽을 가리키는 지남침(指南針)을 표준하기도 하고 혹은 늘 북쪽만 가리키는 나침(羅針)을 표준하기도 한다<sup>59)</sup>. 둘 다 근거가 있다고 성호는 생각했다. 하지만 해의 그림자로 판단한다면 더욱 설득력 있다. 지남침이란 것은 자석(磁石)에서 생긴 것이므로, 해의 그림자에 비교하면 오방(午方)과 병방(丙方) 중간을 가리키게 된다. 오방과 병방 중간이 전 지구의 정남(正南)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성호는 추측했다. 또는 금(金)의 성질이 불을 두려워하여 감히 정오를 가리킬 수 없기 때문으로도 생각했다. 지구는 하늘 안에 있고 하늘은 밖에서 운전하는데, 기(氣)가 안으로 뭉쳐서 둥근 모

양이 흡사 외씨처럼 된 것이다. 그런 까닭에 토맥(土脈)과 석척(石脊)은 반드시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어 나가는 것인즉, 여기서 정기(正氣)가 뭉쳐진 것이 자석으로 되었으므로, 침이 남쪽만을 가리키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해의 그림자에 비교하면 지남침이 가리키는 북쪽은 바로 임자(壬子)란 방위이고, 남쪽은 바로 오병(午丙)이란 방위임은 속일 수 없는 것이다. 혹자는 “지남침은 지기(地氣)를 얻어 만들어졌으니, 지구의 방향을 알려면 마땅히 지남침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해의 그림자로 표준하면, 지남침이 해방(亥方)과 자방(子方) 및 사방(巳方)과 오방(午方)의 중간에서 바르게 되고, 지남침으로 표준하면, 늘 북쪽만 가리키는 나침(羅針)이 자방(子方)과 축방(丑方) 및 오방(午方)과 미방(未方)의 중간에 있게 되는 바, 성호는 이것으로 옛사람이 방위를 정할 때에 해의 그림자를 표준삼지 않고 지남침으로 표준했다는 것을 알았다.

이상의 성호사설에서의 지남침(指南針) 또는 나침(羅針)의 방향을 가리키는 성질을 이용해서 방위를 결정했다는 내용과 해의 그림자를 이용해서 방위를 결정한다는 내용은 대단히 과학적이다. 오늘날에도 두루 통용되는 방법이다. 오늘날 지도를 펼쳐놓고 방위를 잡는 지도정치의 과정에서도 응용되는 내용이다. 모든 지형도의 정치(定置)에는 두 가지 방향을 기준하도록 규정해 놓았는데, 늘 제자리를 지키는 북극성 방향에 북쪽을 정하는 방법(진북)과 나침반의 자침이 가리키는 방향을 북쪽으로 하는 방법(자북)이 그것이다.

한편, 뻗어나간 산맥의 정기가 뭉쳐서 자석으로 되었다는 설명은 맞지 않고, 오늘날 밝혀진 바로는 지구 내부의 외핵에 의한 영향으로 지자기가 발생하게 된다는 설명에 귀 기울여 들을만하다.

## 7. 결론

‘한국학으로서의 지리학’은 그 연구대상이 실로 방대하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국인(또는 동포)들이

주체가 되어 일구어 낸 삶의 공간은 어느 곳이든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과거의 시점을 기준으로 복원한 연구를 포함해 당대의 삶의 터전 모든 곳이 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외 동포들의 이주과정과 그 동기 및 배경, 해외에 진출한 우리의 다국적 기업의 활동 네트워크, 국내의 한인들의 삶의 장소로서 크고 작은 각 지역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지역연구, 고지도와 지리지, 마을지 및 선학들의 고전에 담긴 지리내용과 지리지식 연구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가장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성호의 대표적 저작인 [성호사설] 가운데 만물문(萬物門)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만물문에 나타난 지리 관련 항목들과 내용을 가려 뽑고, 오늘날 지리지식의 분류체계와 내용을 기준으로 비판하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호가 지녔던 소위 '지리적 관심과 사고(思考)'를 간접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성호의 관심 대상이 된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지반의 용기' 증거, 회오리바람, 토양모재의 성격과 절리 방향에 따른 토양의 배수 성질, 옷 말판 그림에 깃든 천문지리의 내용 등 자연지리와 관련한 항목 내용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산삼의 효용성과 진위(眞僞), 담배 이름의 기원과 담배의 해로움, 고추의 원산지과 전파경로, 밤과 대추 및 감 등 전통 과실의 유용성, 고려 종이의 우수성, 뽕나무의 자연적 활용가치, 목면의 명칭 기원과 종류 그리고 전파경로, 천연 염색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복색을 기준으로 한 신분구별, 정책적 말의 사육 관리의 중요성, 방위를 알기위한 지남침과 나침의 이용, 모내기 농기구 '양마(秧馬)' 등 인문지리 관련 항목들이 등장한다.

둘째, 이들 중 내용이 상세하고 깊은 것은 회오리바람, 지남침, 마정(馬政), 고추, 산삼, 대추와 밤, 사도(柶圖)설 등이다. 특히 정책적 말의 사육과 관리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다.

셋째, 내용들의 진위(眞僞)는 대체로 '진(眞)'이다. 철저한 고증 및 인용을 바탕으로 해박한 성호 선생의 과학적 설명이 따르기 때문이다.

넷째, 다른 지리관련 항목들을 보면 당시의 시대적 관심사와 상황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당시 농업경

제에 의존도가 높았고 농촌에 살았던 성호의 애민사상이 반영된 만큼 과실과 농작물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생필품 물자의 운반 및 외적 방어의 전투력과 직결되는 말의 사육과 관리에 정책적 뒷받침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회오리바람' 내용처럼 과학적으로 명쾌하게 설명이 불가능 했던 기이한 자연현상에 대해서는 '지구가 호흡하는 것 같다'고 표현하는 등 경외심을 갖고 바라보았다. 한편 모든 항목의 설명에서 고증과 인용의 대부분이 중국(청)의 문헌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당시 외부 선진세계는 곧 중국(청)이었고 그 영향력의 그늘 속에 조선의 학문이 숨 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는 큰 문물과 문명은 곧 중국(청)이었음을 말해준다.

다섯째, 항목 주제들 중 몇 가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오늘날에도 유용한 정보들이다. 오늘날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어진 몇 가지는 말[馬], 농기구 양마(秧馬), 의료(衣料) 작물인 목면과 뽕나무, 천연 염색 등이다. 말은 승마 및 도박을 위한 경마용으로, 뽕나무는 한방 의료(醫療)용으로 그 기능이 변화되었다.

이상에서 살핀 항목들을 통해 성호의 지리적 관심과 사고(思考)를 엿볼 수 있다. 토양모재의 성질과 절리의 방향에 따라 토양의 배수성질이 달라진다. 토양의 배수상태가 좋고 나쁨에 따라 인간의 토지이용은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이것은 '자연과 인간(인문)과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하고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이렇게 자연의 직접적인 영향과 이에 적응하려는 인간과의 교호작용 속에서 삶의 공간(마을) 입지가 결정된다. 옷놀이 그림판(柶圖)에 대한 성호의 설명은 자연의 섭리를 그림에 녹여 세시풍속놀이로 조화시킨 결정판이다. 하늘과 땅, 별자리, 음양오행, 산협과 해안, 농사의 풍흉 등 천문지리와 인간의 염원 등을 담은 철학적 앙상블의 그림판이다. 자연과 인문의 조화로운 집대성이다. 한편, 고추와 목면, 담배의 전파 경로의 설명은 인간이 지닌 재배기술과 특용(기호)작물에 대한 문화의 전파확산을 말해준다. 풍토와 기후의 지역 차이는 곧 종자의 선택으로 나타나고 적응 방식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원리를 담고 있다. 들판에 야생마처럼 방목하여 키워 낸 말이 강하고 우수하다는 설명에서는 천자연적 환경이 인공(인위)적인 것보다 생



명력을 강하게 한다는 원리를 내포한다. 고추 맛의 비교, 토종 귤감과 중국 과일 리지의 맛의 비교 등은 역시 풍토에 따른 지역 차를 반영한다. 해안지대의 생산 원산지 감과 내륙까지 어렵게 공급된 감은 그 질과 맛에서 다르게 인식된다. 상품생산의 지역 차이와 이에 따른 유통의 원리가 들어있다. 중국의 모내기용 농기구 양마[秧馬]의 설명을 통해서도 “풍토가 달라지면 농업 활동 방식이 달리 나타나며, 중국에는 문화적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는 명제를 성립시킨다. 이상 내용들이 지닌 원리는 주요 지리 개념의 본질을 담고 있다. 이 밖의 항목들 모두 지리 지식 내지 개념의 적용이 가능하다.

성호는 익히 알려진 실학자이다. 그가 선택하고 설명한 지리관련 항목에는 지리 개념과 원리들이 들어 있다. 그리고 성호의 가계에서 학맥을 이어 배출된 많은 실학자들은 각종 지리서들을 생산해 냈다. 성호의 학문과 학맥에는 지리 정신이 깃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성호의 지리적 관심과 지리적 사고(思考)는 그의 설명을 통해 잘 나타났다. 지리지식과 개념 원리를 은연중에 잘 담고 있는 내용들이다. 그리고 지리관련 항목의 설명을 통해서 성호의 보민(保民), 편민(便民), 양민(養民), 애민(愛民), 위민(爲民)을 추구하는 사상을 읽어낼 수 있다. 실학자 성호는 지리지식도 해박하며, 그 설명에는 지리학의 주요 개념들이 내재되어 있다. 해박한 지리지식과 이에 내포된 지리개념들은 그의 철학과 사상을 표현해 내는 긴요한 도구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거꾸로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리적 관심과 지리적 사고(思考)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른다.

성호는 학문적 경향이 근대와 전통의 중간에 서서 시선은 서양과학을 향한 학자였다. 전통 유학을 비판적으로 소화시키는 실학자로서의 자세를 가졌기에, 그 연장선상에서 지리항목에 대한 관심과 지리적 사고를 담은 설명이 가능했다고 보여진다.

요약하건대, 만물문에 나타난 지리관련 항목 수는 비율로 보아 매우 미미하지만 이를 통해 성호의 지리에 대한 관심과 사고(思考)를 간접적으로窺어볼 수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이상에서 성호에 대한 그리고 그의 지리적 사고(思考)에 대한 평가는, 천

지문(天地門)과 만물문(萬物門) 외에 경사문(經史門), 인사문(人事門), 시문문(時文門)을 모두 천착한 후라면 좀더 분명하고 안전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만물문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다소 조심스러운 바가 있다. 미진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은 향후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 주

- 1) [성호사설(星湖僿說)]은 다시 성호의 고제(高弟)인 순암 안정복(安鼎福)에 의해 새로 [성호사설유선(星湖僿說類選)]으로 간추려졌다. [성호사설]은 ‘-문(門)’으로 분류하였으며 척수(제목 분류)는 총 3,007개이고, [사설유선]은 ‘-편(篇)’으로 분류하면서 척수 1,396개로 추려졌다. 이 가운데 만물문(萬物門)은 성호사설 제4, 5, 6권에 해당되며 358항목(척수)의 주제로 구성된다.
- 2) 손용택, 2006, 성호사설에 나타난 지리관 일고찰-천지문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권 3호, pp.392-407 참조.
- 3) [桐巢漫錄] 卷3, 41板, pp.73-81.
- 4) [桐巢漫錄] 卷3, 41板, pp.73-90.
- 5) 李成茂, 1992, 朝鮮後期 黨爭研究의 方向, [朝鮮後期 黨爭의 綜合的 檢討], 韓國精神文化研究院, pp.323-324.
- 6) 李成茂, 1992, 朝鮮後期 黨爭研究의 方向, [朝鮮後期 黨爭의 綜合的 檢討], 韓國精神文化研究院, pp.136-210.
- 7) [藿憂錄] 均田制.
- 8) 李成茂, 1997, 星湖 李瀾의 生涯와 思想, [朝鮮時代 史學報] 제3집, p.119.
- 9) [藿憂錄] 錢論.
- 10) [星湖僿說] 六蠹.
- 11) [星湖僿說] 卷27, 經史門 陣迹論成敗, 같은 책 卷20, 經史門 讀史料成敗.
- 12) 宋贊植, 1997, 星湖의 史論, [朝鮮後期 社會經濟史研究], pp.651-666.
- 13) [星湖先生文集] 卷24, 答案百順.
- 14) 李成茂, 1997, 星湖 李瀾의 生涯와 思想, [朝鮮時代 史學報] 제3집, p.121.
- 15) [星湖先生文集] 家狀.
- 16) [星湖先生文集] 附錄 李秉休 祭文.
- 17) [星湖僿說] 卷11, 變法.
- 18) 韓治勳, 1980, [星湖 李瀾研究-一人間 星湖와 그의 政治思想-], 서울대학교 출판부, pp.44-45.

- 19) 韓洙, 앞의 책 pp.54-59.
- 20) 韓洙, 앞의 책, p.68.
- 21) 韓洙, 앞의 책, p.63.
- 22) 성호사설 제4권 만물문; 국역 성호사설Ⅱ 만물문(1982, 민족문화추진회), p.13, 고산나뭇(高山螺蜂) 항목에 관련내용이 나타난다.
- 23) 성호사설 제4권 만물문; 국역 성호사설Ⅱ 만물문(1982, 민족문화추진회), pp.60-61의 '부요양각(扶搖羊角)' 항목에 관련내용이 나타난다.
- 24) 대체로 대륙에서 발생하는 것은 대륙선평이라 하고, 바다 위에서 발생할 때에는 '용오름'이라고 부른다.
- 25) 성호사설 제4권 만물문; 국역 성호사설Ⅱ 만물문(1982, 민족문화추진회), p.136의 '토리횡수(土理橫竪)' 항목에 관련내용이 나타난다.
- 26) 송나라 문장가로 이름은 陳師道. 후산은 호이다.
- 27) 국역 성호사설Ⅱ 만물문(1982, 민족문화추진회), p.22의 '사도(柶圖)'항에 관련내용이 나타난다.
- 28) 옷 말판에 관한 철학적 내용의 설명을 말한다.
- 29) 28개의 별자리[宿]로 다음과 같다.; 각(角), 항(亢), 저(底), 방(房), 심(心), 미(尾), 기(箕), 두(斗), 우(牛), 여(女), 허(虛), 위(危), 실(室), 벽(壁), 규(奎), 누(婁), 위(胃), 묘(昴), 필(畢), 자(觜), 삼(參), 정(井), 귀(鬼), 유(柳), 성(星), 장(張), 익(翼), 진(軫) 등이다.(이상은 민족문화추진위원회 국역 성호사설Ⅱ, p.24의 주를 재인용한 것이다.)
- 30) 국역 성호사설Ⅱ 만물문(1982, 민족문화추진회), p.26의 '남초(南草)'항에 관련내용이 나타난다.
- 31) 국역 성호사설Ⅱ 만물문(1982, 민족문화추진회), p.12의 '번초(番椒)'항에 관련내용이 나타난다.
- 32) 성호사설 제4권 만물문; 국역 성호사설Ⅱ 만물문(1982, 민족문화추진회), pp.122-123의 '조증올택(棗蒸栗擇)'항에 관련내용이 나타난다.
- 33) 장례 전에 술과 과실을 간단히 올리는 일을 말한다.
- 34) 성호사설 제4권 만물문; 국역 성호사설Ⅱ 만물문(1982, 민족문화추진회), p.102의 '시저(柿諸)'항에 관련내용이 나타난다.
- 35) 국역 성호사설Ⅱ 만물문(1982, 민족문화추진회), p.155의 '시(柿)'항에 관련내용이 나타난다.
- 36) [類選] 卷五上 人事篇八服食門. 성호사설 제4권 만물문; 국역 성호사설Ⅱ 만물문(1982, 민족문화추진회), pp.149-150의 '산삼(山蓂)'항에 관련내용이 나타난다.
- 37) 성호사설 제4권 만물문; 국역 성호사설Ⅱ 만물문(1982, 민족문화추진회), p.66-67의 '견지(繭紙)'항에 관련내용이 나타난다.
- 38) 쥐 수염으로 만든 붓을 말한다.
- 39) 진(晉)나라 왕희지가 지은 蘭亭記를 쓴 시첩을 말한다.
- 40) 각종 器物과 書畫 따위를 종류별로 기록한 책이다.
- 41) 성호사설 제4권 만물문; 국역 성호사설Ⅱ 만물문(1982, 민족문화추진회), p.107의 '지상(地桑)'항에 관련내용이 나타난다. 地桑에 관해서는 [類選] 卷十中 萬物篇 草木門. [五洲] 卷十三 地桑辨證說. [林園] 卷二十 展功志一 등에도 보인다.
- 42) 당노 등 성인병 치료에 쓰이고 있다.
- 43) 성호사설 제5권 만물문; 국역 성호사설Ⅱ 만물문(1982, 민족문화추진회), pp.270-272의 '목면(木棉)'항에 관련내용이 나타난다.
- 44) 중국 南朝의 1백70년 歷史書를 말한다.
- 45) 중국 新疆省에 있었던 옛 나라이름이다.
- 46) 송나라 李石이 지은 것으로 擘나라 張華가 지은 박물지에 빠진 것을 보충해 기록한 책이다.
- 47) 성호사설 제4권 만물문; 국역 성호사설Ⅱ 만물문(1982, 민족문화추진회), p.21-22의 '유자, 적자(黝紫赤紫)'항에 관련내용이 나타난다.
- 48) 성호사설 제4권 만물문; 국역 성호사설Ⅱ 만물문(1982, 민족문화추진회), pp.48~49의 '양마(映馬)'항에 관련내용이 나타난다.
- 49) 이 말은 夏禹氏가 아홉 번이나 홍수를 다스릴 때의 일로, [史記] 하본기(夏本紀)에, '陸行乘車 水行乘船 泥行乘0 山行乘橫'이라고 한 것에서 나온 것이다.
- 50) 성호사설 제4권 만물문; 국역 성호사설Ⅱ 만물문(1982, 민족문화추진회), p.130-131의 '목장(牧場)'항에 관련내용이 나온다.
- 51) 周나라 孝王의 신하였다.
- 52) 周나라 제8대 임금으로 이름은 辟이다.
- 53) 漢나라 光武의 장수이다.
- 54) 성호사설 제4권 만물문; 국역 성호사설Ⅱ 만물문(1982, 민족문화추진회), pp.114-115의 '양마(養馬)'항에 관련내용이 나타난다.
- 55) 서역의 나라이름으로 이곳에서 좋은 말이 많이 생산되었다고 한다.
- 56) 일곱 자가 넘는 큰 말로서, 위 문공衛文公이 나라를 부하게 만들어 내빈이 3천 필이나 되었다고 전한다.
- 57) 살찐 말을 이르는 것으로, 노희공魯僖公이 백성을 사랑하고 농사에 힘써, 먹이는 말이 살찌게 되었다고 한다.
- 58) 국역 성호사설Ⅱ 만물문(1982, 민족문화추진회), p.28의 '과하마(果下馬)'항에 관련내용이 나타난다.
- 59) 성호사설 제4권 만물문; 국역 성호사설Ⅱ 만물문(1982, 민족문화추진회), p.38-41의 '지남침(指南針)'항에 관련내용이 나타난다.

참고문헌

- Choi, Bak-gwang, 1985, “Seongho saseol(星湖僿說) ui jonghapjeok geomto” (Overall examination of *Insignificant explanations of Seongho*). *The Chin-Tan Hakpo* 59 (0): 199-214.
- Han, Woo-Keun, 1977, “Seongho saseol haeje” (Bibliographical introduction to *Insignificant explanations of Seongho*). pp. 1-41 in *Gugyeok Seongho saseol 1* (Insignificant explanations of Seongho, Korean translation). Seoul: Minjok Munhwa Chujinhoe (Association for the Promotion of Korean Culture).
- Jeong, Seok-jong, 1967, “Seongho Yi Ik.” *Changjak gwa bipyeong* (The Quarterly Changbi) 4 (2): 404-29.
- Kang, Byeong-su, 2011, “Seongho Yi Ik ui Seongho saseol ui segye” (Seongho Yi Ik’s world of *Insignificant explanations of Seongho*). *Dongguk sahak* (The Dongguk history) 50:127-71.
- Minjok Munhwa Chujinhoe, 1982, *Gugyeok Seongho saseol 2: Manmulmun* (Insignificant explanations of Seongho, Korean translation 2: On myriad things). Seoul: Minjok Munhwa Chujinhoe.
- Sim, Jae-gi, 2005, “Han’guk ui myeongmun sullye 26: Yi Ik(李瀼) ui Seongho saseol(星湖僿說)” (A journey through famous writings of Korea 26: Yi Ik’s Insignificant explanations of Seongho). *Han’geul hanja munhwa* (Han’geul hanja culture) 72 (0): 42-44.
- Sohn, Yong Taek, 2006, “Seongho saseol e natanan jirigwan ilgochal—Cheonjimun eul jungsim euro” (Investigation of the geographical perspective in *Insignificant explanations of Seongho*—Focusing on “On heaven and earth”). *Han’guk jiyook jirihakhoeji*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2 (3): 392-407.
- Yi, Byeong-do, 1985, “Seongho saseol(星湖僿說) ui jonghapjeok geomtosa” (History of an overall examination of Insignificant explanations of Seongho). *The Chin-Tan Hakpo* 59: 156.
- Yi, Ga-won, 1967, “Seongho saseol haeje” (Bibliographical introduction to *Insignificant explanations of Seongho*). pp. 1-41 in *Seongho saseol sang* (Insignificant explanations of Seongho, vol. 1). Seoul: Kyung Hee Chulpansa (Kyung Hee University Press).
- Yu, In-hui, 1985, “Seongho saseol(星湖僿說) ui jonghapjeok geomto: Seongho saseol ui cheolhak sasang--Jeong-Jurihak(程朱理學) gwau bigyo yeon’gu” (An overall examination of *Insignificant explanations of Seongho*: Philosophical thinking of *Insignificant explanations of Seongho*--Comparing it to the Cheng-Zhu Neo-Confucianism). *The Chin-Tan Hakpo* 59 (0): 157-75.
- 교신: 손용택, 463-79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하오고개길 110(이메일: sohn@aks.ac.kr, 전화: 031-709-5761)
- Correspondence: Sohn Yongtaek, 110 Haogogae-gil, Bundang-gu, Seongnam-si, Geonggi-do, 463-791, Korea (e-mail: sohn@aks.ac.kr, phone: +82-31-709-5761)
- 최초투고일 2012. 2. 14.  
수정일 2012. 2. 22.  
최종접수일 2012. 2. 27.